

ISOPBM 2017 Seoul

"수혈,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환자혈액관리(PBM) 도입...수혈 위험 줄이고 혈액수급난 해결



대한혈액관리학회 및 세계 권위자, 환자혈액관리 중요성 강조

수술 시 필수적인 '수혈'이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빈혈이 있는 경우 수술 전 미리 치료를 하는 등 '환자혈액관리(PBM)'를 통해 수혈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혈액수급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우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 회장(국립암센터)은 지난 12월 1일 서울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국

제학술대회 'ISOPBM 2017 Seoul' 기자간담회에서 환자혈액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환자혈액관리(PBM)란 환자에게 혈액이 부족할 경우 수혈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최선의 치료 전략을 다학제적으로 접근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김 회장은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장기적으로 혈액수급은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혈액 사용량 역시 혈액 부족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정한 수혈 가이드라인에는 혈액소 수치가 7g/dl 이하인 경우에만 수혈을 권고하지만 여

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적정 수혈, 수혈 대체 치료법 등 환자 혈액관리를 통해 혈액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PBM 개념이란 도입된 지는 4년에 불과하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가 '수혈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정재 전 회장은 "그 전에도 적절한 수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었지만 임상에서 적용되지 못했다"며 "대부분의 의사들은 수혈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 등을 느끼는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는 환자혈액관리 분야 세계 권위자들도 함께 참석해 국제 사회에서의 관심과 주요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악셀 호프만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대학 교수는 "현재 국가의료시스템에 환자혈액관리를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미국은 25%, 호주는 50%가 도입했으며 앞으로 증가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호프만 교수는 "중요한 것은 PBM 도입을 통해 환자의 상태가 개선된 것"이라며 "사망확률은 28%, 병원 감염 건수는 21%, 뇌졸중 위험도는 3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럽위원회 산하 소비자 보호부서는 PBM을 유럽 전체지역 보건의료에 표준케어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며 "모든 시민들이 적정 수혈할 수 있는 PBM에 대한 접근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비 리처드 영국 런던대학 교수는 "전세계 여성 10명 중 1명은 빈혈이다. 이런 환자들에게 철분을 보충한 뒤 수술에 들어가면 수술 결과가 개선된다"면서 "환자혈액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예방적



▲ 김영우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 회장

치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PBM을 도입한 의료기관은 공공기관을 비롯해 거의 전무한 상태이지만 정부의 정책화에 따라 급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영우 회장은 "호주는 혈액관리 가이드라인이 나온 후 2~3년만에 도입되기 시작했다"며 "우리나라도 현재 정부와 논의되고 있는 진행상황을 감안하면 급격히 증가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전문가들의 발언이 자칫 PBM의 의미를 오도(誤導)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왔다.

엄태현 일산 백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혈액은행은 5.25 전쟁때 도입돼 매혈로 이루어지다가 헌혈로 바뀌었고 지금은 100% 헌혈을 통해 공급된다"며 "2004년 혈액 정책으로 감염에 대한 안전성이 세계적인 수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엄 교수는 "수혈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 치료방법에서 환자를 중심에 놓고 최적의 치료를 하자는 것"이라며 "의미가 오도가 되면 헌혈률이 떨어지고 그러면 진짜 혈액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혈을 못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정희 기자/MP저널